



신행수기

진실한 믿음 <중>

지영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열심히 정진한 이들이 지나면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나 싶더니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기자. '나는 의문도 많고 병도 많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탄식했다. 나는 몸이 쇠약해지면 서 밤늦게 소변을 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방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처마등 불빛이 비치기만 했지만 팔만 들린 산사의 밤은 적막했고 공간이 풍경소리만 어둠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을 의지로 참을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 잠을 깨울까 염려하며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서 모퉁이를 돌아갈 무렵 나는 안심처럼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를 안심시켜 주던 스님 방에 불이 환히 쬐여져 있고 거기다가 방문이 반쯤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이쿠 살았구나' 하는 심정으로 안심하고 불 일을 마쳤다. 속으로는 스님이 나를 보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편안한 잠들었다.

다음날도 여전히 밤늦게 화장실 가는 일은 계속됐는데, 그날도 스님 방에는 전날처럼 불이 쬐여져 있었고 방문도 반쯤 열려 있었으며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해 아침공양을 마치고 스님을 찾아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스님은 전혀 모르는 채 하시면서 "보살님이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은 염불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부족한 탓입니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정말로 놀라고 말았다. '아! 내 곁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고, 다음날 부처는 법에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나는 진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스님들의 고행이란 참으로 경건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한 뜻깊은 기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너무도 기뻐다.

내가 염불하지 보름이 되었을 때 스님은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 집에 가도 되겠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떠나야 하는 것이 무척 서운했지만 다음날을 기억하고 서을 집으로 올라왔다.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절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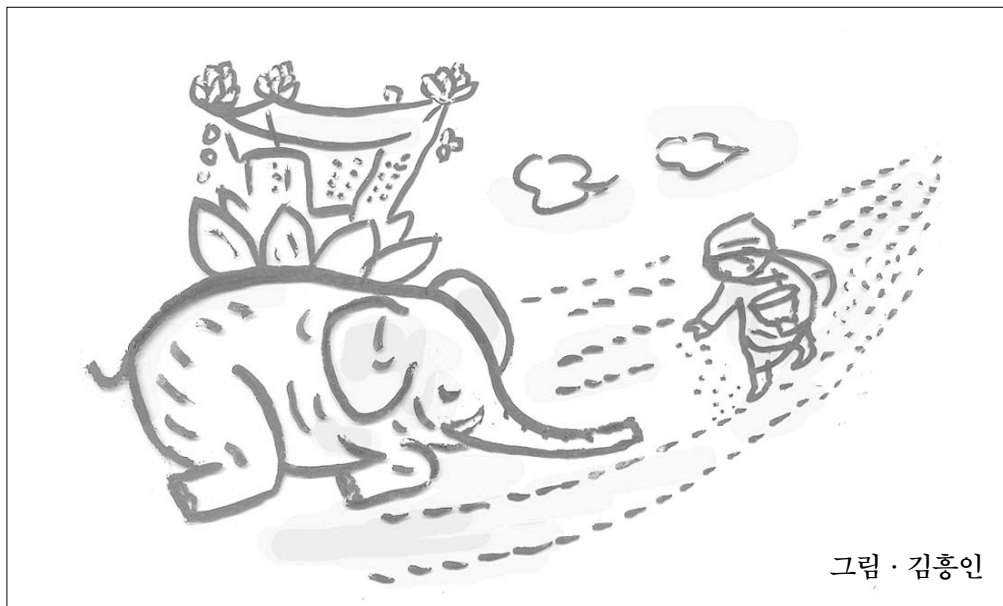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내 곁에 부처님 계시는 걸 잊고 살았구나!”

스님의 자상한 지도로 믿음의 의미 깨달아

더니 우리집 어른은 참으로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 한담에 한 번씩은 내려 갔다. 오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가족들의 환영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다음날 보름날에 나는 큰 아들의 차를 타고 며칠 머무는 생각으로 멀고 먼 부산까지 내려갔다.

내가 내려가자 스님은 매우 반가워하셨다. 나는 미리 메모해간 것으로 스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다. 물론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믿음으로써 안심을 얻는다"는 신념에 찬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복이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 혼자 복을 가질하는 기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

씀을 듣고, 지난 신행생활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 때 스님께서 "보살님! 아마타불 염불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물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속으로 '내가 명이 짧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스님 이미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면서 얼른 "큰 스님이 그러시는데 젊어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늙어서는 아마타불을 부르라고 하시던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스님은 "나는 보살님보다 젊는데 아마타불만 부르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면서 큰 소리로 결정 웃으셨다.

스님은 한참 계시다가 말씀을 이으셨다. "보살님, 순수한 마음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성적이지 못하면 깨달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삶에서 야기되는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문제들을 통째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법과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염불은 믿음으로 해결하는 법입니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염 번만 부르면 윤회를 벗어난다는 믿음을 진실로 믿음으로써 믿음을 얻고, 인과법을 믿고 선행을 행하며 삶에 충실하는 수행법입니다" 하시고는

잠시 후 이어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젊은이와 노인이 따로 있을 수 없고 복받음 법과 극락가는 법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극락이 지극한 복입니다. 또 죽음이란 늙어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보살님은 서울이 집이니 우리나라의 중심이요, 현대의 고등교육까지 마쳤으니 시골 노보살이 하는 염불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다.

나는 스님의 말씀에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며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런데 스님은 다시 "보살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니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 쉬울 뿐 아니라, 깨달음도 빠를 것입니다"하셨다.

나는 귀가 번쩍 뜨이고 다시 마음이 밝아졌다. 청안과 더불어 깨달음도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지금까지 듣지 못한 법문이었고 내 정신을 송두리째 이리저리 쏠리게 하는 마력을 가진 듯했다. 나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자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 스님은 마무리를 하시면서 "나무아미타불 염 번 부르면 윤회도 벗어난다는 믿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선군이 깊은 사람입니다"라고 하시고 마지쳤다.

나는 사흘이 지난 후 아쉬웠지만 약속된 날이 되어 서울행 열차 편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상>

우리는 무엇을 갖지 못했을 때 갖지 못해서 안타깝고, 소유하고 나면 그것을 놓칠까봐 안절부절이다. 이렇게 일어난 탐심은 또 다른 탐심을 유발해 결국에는 공허함 밖에 남는 것이 없다. 가져도 고통이 가지지 못해도 고통이다. 어찌하든 이 세상을 사는 일은 괴롭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오직 탐진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탐진치가 일어나서 괴롭고 탐진치가 남긴 후유증에 또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지만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여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고집멸도(苦集滅道)다. 이 때문에 부처님이라면 틀림없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답을 <금강경>에서 찾으려 했다.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



황영애
도서출판 행복한국 대표

사나 수행이다. 이 수행의 근거가 되는 <대념처경(大念處經)>에 보면, "할 때 하는 것을 알라"고 했다.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렇게 현재의 알아차림이 계속된다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 즉 각자(覺者)의 삶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심 들끓을때 '부처님이라면?' 의문 금강경 읽으며 집착없고 살기 노력

가짐을 가지며(應云何) 어떻게 하면 번뇌하는 마음을 조복 받을 수 있는가(應云何降伏其心)를 제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40 여년을 오직 <금강경>만을 읽고 또 읽었다. 이것은 또 우리 집안의 가훈이기도 했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후에는 <금강경> 읽기를 유언으로 여기고 오직 거기에 의지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전을 읽어도 역시 내게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전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以生其心)"고 하였는데, 한 동안은 이것이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했다.

생각으로만 집착하지 않는다고 여길 뿐이지, 정말 이것이 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꽤 오랜 기간을 <금강경>에 나오는 그 좋은 구절들을 눈 앞에 두고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까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

그러다가 4년 전에 만난 것이 위빠

와가 날 때는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화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무엇을 원할 때는 "내가 지금 탐심을 내고 있구나" 하고 탐심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화는 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대상이라는 자세로 입할 때 수행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란 현상을 객관화하여 지켜볼 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위빠사나 수행을 하면서 비로소 부처님의 수행법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 수행은 일상의 모든 것에서 가능해서 좋다. 마로 수행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걷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이 모두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행할 임무가 난다. 이제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만 하면 된다.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스승들에 의해서 검증된 것이기에 더욱 신뢰할 만하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isyhy@buddhapia.com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상,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면, 손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솜염색) 적상,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화솜 누비(면염색) 적상,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울세탁) 적상,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계열모직 250,000 실크 · 금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전화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법요집·기초교리集과도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과도집은 법당에 걸려 비치한 해두서도 신도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할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법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후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화장과 반배
7. 고두레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명법
11. 삼법인 17. 삼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살삼매론
■ 기획: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02-772-9052

사주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사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관상학, 기문문답

역학무료 (수강료 없음)
힘든 경기에 앞길이 막막한 분
초급부터 개업까지 가르칩니다
● 초급반 10명
● 고급반 10명
● 성명학 10명
※ 단, 45세미만
※ 선착순 접수
※ 주 2회 강의
해수 명리 연구원(원장직강)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1 수림빌딩 307호 영동 전화국 맞은편
02) 3453-0001